

■ 우리들의 기생충 관리



기생충을
없애는
방법

기생충이란 반드시 지구상에서 없애야 할 해로운 생물체이다.

가끔 기생충 조사와 주민치료를 위해 농촌 또는 해안지역으로 출장을 가는 일이 많은데 여행도중 주민으로부터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있다.

「기생충은 우리 선조 대대로 있어 왔고 그래도 별로 건강에 장애가 없었던 것 같으니 해로운 것이 없고 오히려 누구나 있는 것이니 나도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소」 하며 구충제 복용을 거부하는 분들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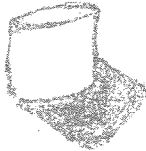
한 술 더 떠서 「기생충은 우리 몸에서 共生(symbiosis)하고 있는 것이니 오히려 필요한 것인데 왜 없애려고 하시오」 하는 분도 있다.

■ 채 종 일

「악어」와 「악어새」처럼 서로 돕는 생물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요즘은 높은 교육수준과 특히 보건교육, 캠페인 등을 통한 결과때문인지 기생충 퇴치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더구나, 간흡충(간디스토마)에 걸려 간담도의 염증이 생겨 황달이 있고 전신쇠약을 나타내는 경우나 더 심한 경우 간암을 일으킨 경우 본인이나 그 가족은 기생충의 무서움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회충이 덩어리로 뭉쳐 작은 창자를 꽉 막아 급성



복통과 소화불량을 일으키거나 또 장
이 터져 복막염을 일으키면 목숨을
잃는 수도 있으니 이런 경우를 겪거
나 들은우리가 기생충을 없애야
한다는 당연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생
각한다.

이렇게 기생충을 없애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는 있으나 어떻
게 해야 기생충의 퇴치가 가능한지
에 대해서는 비교적 인식된 바가 적
은 것 같다. 기생충을 없애는 데에는
크게 세 가지의 방법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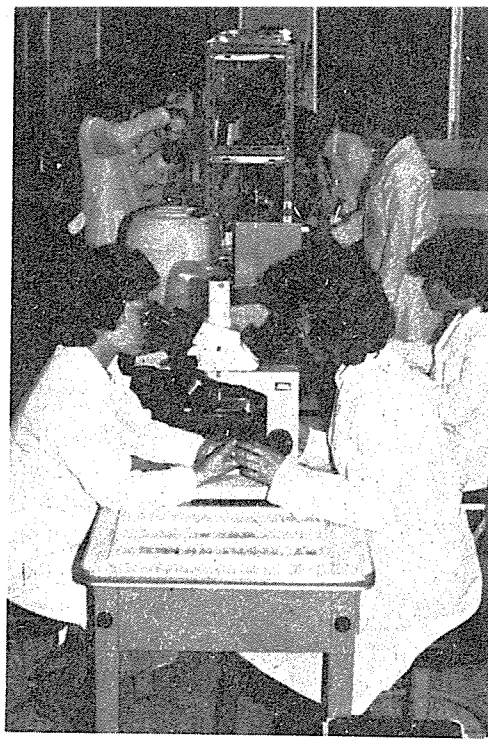
그 하나는 우선 걸리지 않도록 「예
방」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걸린 사
람에게서 기생충을 「구충」하는 방법
이며, 나머지 하나는 위 두가지를 포
합하는 집단 또는 국가적 차원의 「관
리」가 그것이다.

우선 「예방」의 경우를 살펴보자.

기생충의 감염은 대부분의 경우 기
생충의 유충(애벌레)이 포함되어 있
는 음식물을 먹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여기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
하다.

회충을 예로 들면 채소가 하나의
중요한 감염경로인데 이것을 김치나
또는 다른 모양으로 조리할 때 충분
히 흐르는 물에 담궜다가 조리 함으
로써 상당한 예방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 간흡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민
물고기의 근육이나 내장 등우 회(膾)
로 먹는 것을 피하고 끓인
이 좋은 예방책이 된다. 요...
정사정이 좋아져서 그런지 몸의 보신



(補身)에 대하여 관심도가 더욱 높아
지고 뚜렷한 보신효과가 증명되어 있
지도 않은 뱀, 개구리 등의 근육을 날
로 먹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끓이거나 충
분히 조리된 것이 아니면 「스파르가
눔」이나 「피브리콜라」라고 하는 무서
운 기생충에 걸리기 쉽다는 것을 반
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식품을 날로 먹어서 걸리는 기생충
은 이것 이외에도 무수히 많다. 소고
기나 돼지고기를 육회(肉膾)로 먹는
경우 「유구조충」이나 「무구조충」에
걸린다는 것이 이미 널리 알고 있는
일이며 산골이나 농촌의 냇가에서 잡
은 가재나 게를 날로 먹으면 「폐흡충

(페디스토마)에 걸려 심한 증상을 나타낸다는 것도 잘 알려진 대로이다.

최근에 와서 민물고기뿐만 아니라 반염수산 어류(민물과 바닷물이 합치는 곳에서 잡히는)도 문제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송어」 「농어」 「문질망둑」 등의 아가미나 근육에는 「이형흡충」 또는 「피지디옵시스」 등의 흡충류 애벌레가 있어 이에 감염되기 쉽다.

이와같이 기생충은 식품을 날로 먹음으로써 걸리는 종류가 대단히 많다. 따라서 기생충 예방은 충분히 조리하거나 익힌 음식을 먹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하겠다. 음식물 뿐만 아니라 식수도 때로는 중요한 기생충 감염경로가 된다.

피가 섞인 대변을 보고 설사를 하며 복통을 일으키기도 하는 이질의 감염이 식수를 통해서 감염되기도 하며 물벼룩이 살고 있는 산골의 고인물을 약수로 오인하여 먹으면 「스파르가눔」이라는 촌충의 애벌레에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이 우려되고 있다.

이들 이외에도 각종 기생충 및 세균감염의 우려가 있으므로 식수는 반드시 끓여서 먹어야 한다는 것이 대부분 의학계의 의견인 것이다.

두번째 방법인 「구충」의 경우를 보자.

이미 기생충에 감염되어 있는 사람은 하루 빨리 그것을 없애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되도록 옛날부터 알려져 내려온 민간요법을 피하고 최

근에 새로 알려진 우수한 적절한 약제를 사용하여 제대로 구충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문이나 라디오, T·V에 나오는 약제면 거의 민을만 하나 더욱 중요한 것은 정확한 검진을 받은 후 자신의 감염기생충 종류 및 감염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이 꼭 필요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참고로 최근에 효과가 인정되고 있는 중요한 약제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아메바 및 지알디아증은 「메트로니다졸, 회충, 요충, 구충 등은 「피란텔 파모에이트, 「메벤다졸」 또는 「레바미졸」 등이 유효하며, 편충에는 「메벤다졸」이나 「옥산텔제제」이 효과가 있다.

간흡충 및 폐흡충에는 가장 최근에 개발된 「프라지판텔(빌트리시드, 디스트시드)」이 우수한 구충효과가 있다고 한다. 촌충(유, 무구조충)에는 「니콜로사아마이드(요메산, 타에니아) 「비치오놀(비치놀)」 등이 알려져 있다.

개별적인 구충제 복용후에는 되도록 2-3 주후에 다시 대변검사를 받아 구충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더욱 좋다.

동시에 1년에 2번정도는 계속 대변검사를 받는 것이 권할만한 건강관리의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다음으로는 국가적 차원의 「관리」 방법에 대하여 언급하기로 하자. 기생충이란 소위 자기 고유의 생활사(生活史)를 가지고 있는 생물이다.

다시 말해서 총란의 시기에서 제 1 또는 제 2 중간숙주를 경유하여 사람을 포함한 중숙주에 감염되는 종류도 있고 요충이나 왜소조충처럼 총란이 직접 사람에게 감염되는 종류도 있다. 또 말라리아처럼 사람이 모기의 중간숙주 노릇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대규모의 관리사업을 위해서는 개개 기생충마다 특이한 생활사를 파괴하는 방법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중요한 회충의 예를 들면, 세 가지의 집단관리의 방법이 있다. 하나는 전체 감염자에 대한 「집단치료」가 그것이며 둘째는 「환경개선」이며 세째는 「보건교육」이다. 「집단치료」는 현재 기생충박멸 협회에서 실시하는 것과 같이 초, 중 고 학생전원을 집단검진하고 회충 양성자에 대하여 1년 2회 집단 투약을 계속하는 방법이며 「환경개선」은 인체로부터 나온 총란이 환경에 오염되지 않도록 인분비료사용을 금지 또는 지양하고 화학비료로 대체하거나 인분을 충분히 썩혀 총란을 죽인 다음 사용토록 하거나, 변소를 아예 수세식으로 개조하여 전혀 총란이 논, 밭으로 뿌려지지 않도록 하는 등의 방법이다.

「보건교육」은 앞에서 말한 「예방」의 방법을 캠페인 등을 통하여 교육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각종 방법을 말한다.

회충의 경우는 이들 방법중 「집단 투약」의 방법이 가장 중요하고 효율

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간흡충이나 요꼬가와 흡충과 같은 기생충의 경우에는 「집단투약」뿐만아니라 「보건교육」이 이에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붕어, 잉어, 은어등 물고기를 날로 먹는 습관을 하루아침에 고치기란 매우 어려우나 이 습관이 계속되는 한 아무리 투약하여 치료해도 다시 걸리는 악순환을 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흡충류 종류의 제 1중간숙주인 「왜우렁」이나 「다슬기」를 모두 없애면 이 기생충의 생활사를 완전히 끊을 수 있으나 이 숙주를 완전히 없애기는 생태학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결론적으로 기생충을 없애려면 무엇보다도 개개인의 위생의식이 중요한 것이다. 물이나 음식을 잘 처리한 후 먹으면 기생충에 걸릴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값비싼 구충제를 굶이 사먹을 필요가 없다.

또, 일단 기생충에 감염되었다라도 1년 2회의 정기적인 대변검사를 실시하고 자신의 건강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적절한 구충제를 사용함으로써 완전히 구충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예방」과 「치료」에 관심을 기울이며 국가적으로는 적극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책을 세우고 이를 위하여 부심한다면, 기생충을 없애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다.

〈필자=국군 서울지구병원 면역과장〉